

「警友봉사왕」에 金有平 여수海警 회장

- 警友會 및 지역사회발전 위한 헌신적 奉仕 실천 -

태극기 무료 보급,

경우장학금 5천만원 기탁

김유평 여수해경경우회장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회원 결속력 강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5월 17일 제 30차 정기 전국총회 자리에서 영예의 트로피와 부상으로 상금 1백만원을 받았다.

『警友의 한사람으로서 조직을 사랑하고 현직시절 받은 혜택을 지역사회에 돌려주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 뿐인데 이렇게 과분한 상을 받게 되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김 회장.

평소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일관해 왔던 그는 뭔가 남을 돕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생활철학으로 삼고 살아왔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지난 75년 3월 경찰에 투신한 이래 제주, 여수, 목포, 부산 등지에서 海警署長을 역임하면서 치안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녕과 질서, 그리고 경찰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이어 졌다.

또한 퇴임 이후에도 여수에서



(주)한려항만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제 2의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나라사랑을 위한 무료 태극기 보급운동을 펼쳐 왔다.

그는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 운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지난 95년부터 최근까지 무료로 보급한 태극기는 2만 7천여매로(자비로 기금 1억 5천여만원 출연), 『특히 금년에는 각 관공서 공무원들의 태극기 기탁을 유도하기 위해 인근지역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으며, 앞으로는 국가가 없거나 훼손된 가정에도 국가가 없거나 훼손된 가정에도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기회가 되면 독도에도 태극기를 전달하고 싶다』고 한다.

한편 김 회장의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라·이웃·부모·동료·자식사랑 등 5대 실천운동으로 이어진다.

그는 이웃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96년부터 광양시와 순천시 등지의 무의탁 독거노인 및 소년 소녀가장 등 불우이웃 돕기에 나서 1백 90여명에게 3천만원 상당의 성금과 부식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97년부터 국제무역항의 발전에 일조하고자 300여회에

결친 광양항 작업현장의 무상 방역 및 부두작업중 비산된 원료를 수거해 재활용케 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2억 5000만원의 원료절감에 앞장서 온 공로 등을 인정받아 지난 해 10월 지역개발 부문에서 「여수시민의 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한편 김 회장의 조직사상은 남다르다.

지난 94년부터 여수해경 경우회장을 맡아 왔던 그는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지난 해 해경경우회 산하 70세 이상 원로회원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 및 명승지 관광을 주최하는 것을 비롯해 조직 활성화 및 회원 친목도모에 열성을 보여줌으로서 지역회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최근에는 경우회 중앙회를 직접 방문해 경우장학기금 5,000만원을 기탁하고 『우수한 경우자녀들에게 면학의 꿈을 키워 주는데 활용케 줄 것』을 주문하는 열성을 보이는 참 경찰인의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국가와 경찰, 警友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싶다』는 김 회장.

그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경우회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新任 사무총장에 李庸祥 前 전북경찰청장

- 사업본부장에 孫琪錫 前 경찰청 경무과장, 감사에 이수호 서울강남회장 · 유병은 부산진회장 -

재향경우회는 지난 6월 1일 중앙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임기가 만료된 현성일 사무총장과 조정래 사업본부장의 후임으로 이웅상 前 전북경찰청장과 손기석 前 경찰청 경무과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날 구종일 경우회장은 이들에

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국가와 경찰을 사랑하는 조직의 정체성에 걸맞게 현직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 2의 봉사를 실천한다는 각오로 주어진 임기 동안 조직 발전과 경우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우회는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17일 제 30차 정기 전국총회에서 역시 임기가 만료된 최병일, 김광웅 중앙회 감사의 후임으로 이수호 서울강남 경우회장과 유병은 부산 부산진 경우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웅상 사무총장



손기석 사업본부장



이수호 감사



유병은 감사

약 령
▶서울청 교통안전과장
▶경찰청 정보과장
▶서울 용산서장
▶충북경찰청장
▶전북경찰청장
▶도로교통안전공단 총무 이사

약 령
▶경북경찰청 정보과장
▶부산중부서장
▶경찰청 경무과장
▶서울 북부서장
▶(주)삼남개발 감사
▶중앙회 이사

약 령
▶경남통영서장
▶경남사천서장
▶서울 용산서장
▶서울경찰청 인사과장
▶충포안전협회 감사
▶서울강남 경우회장

약 령
▶부산남부서 형사과장
▶부산 금정서 경무과장
▶(주)우석공업 상임고문
▶부산경찰학교 수석학 강사
▶부산 부산진 경우회장

주민위한 高品格 행정서비스 펼칠 터

전국 지방선거, 警友 22명 當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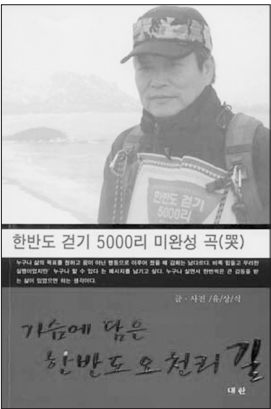
지난 5월 31일 실시된 제 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충남 도지사에 당선된 이완구 前 충남경찰청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에 5명, 광역의원에 2명, 기초의원에 14명 등 총 22명의 警友들이 영광을 안았다.(本誌 과약

자료) 이들 모두는 현직시절의 경험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려 앞으로 주어진 임기인 4년 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한 高品格 행정서비스를 펼칠 것을 다짐했다.

유상식 前 경찰청 차장

「가슴에 담은 한반도 오천리 길」 책 출간

- ‘땅끝마을’에서 통일전망대’ 까지 종단 -



유상식 前 경찰청 차장(69세)이 한반도 통일열망을 담고 남쪽 땅 끝마을(토발)에서 통일전망대까지 종단을 마치고 최근 「가슴에 담은 한반도 오천리 길」이란 책을 출간했다.

『한반도 통일열망과 국토사랑 현장답사를 명분으로 하고, 깨어 있는 삶을 위한 심신수행을 화두로 삼았다』는 俞 前 청장.

그는 한달 만에 1차 구간인 남

한 땅 2500리 여정을 완료했고, 2차 구간인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두만강변)까지의 나머지 2500리를 남겨 두고 있다.

俞 前 청장은 『그간 열 네번의 백두대간을 넘나 들었고, 두 번의 백두대간 산행을 갖게 되었으며, 6개도 27개 시·군을 지나치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꼈고, 자신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1차 종단과 관련 이왕이면 한반도의 척추적인 백두대간을 넘나들면서 경기도 결정했고, 뜻이 맞는 동료 2명(이영웅, 67세, 이상택, 65세)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3월 1일에 출발해 한달만인 3월 31일, 그 대장정을 완료했다.

또한 2차 대장정의 완성은 어느

해가 될지 모르지만 온 겨레가 해방의 감격을 외쳤던 8월 15일로 정했고, 그것은 남북한 자유왕래가 가능할 때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俞 前 청장이 이번 종단과 관련, 魂을 담아 출간한 책에는 '걸으면서 만난 삶의 현장' 편을 통해 도보로 이동했던 지역들에 대한 특성, 보고 듣고 느낀 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지역의 산과 특산물, 경치 등에 대한 다양한 컬러 사진까지 곁들여 더욱 더 사실감을 더하고 있다.

또한 후반부에는 '걸으면서 만난 삶의 화두'란 주제로 이번 종단을 통해 얻은 경험담, 혹은 평소 자신의 인생철학을 심도 있게 파헤쳐하고 있어 독자들이 하여금 가슴 정한 감동을 맛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俞 前 청장은 해양경찰청

장과 경찰청 차장을 끝으로 지난 96년 현직에서 물러난 후 지난 88년에는 낙동강 1300리(태백 황지에서 부산 하단)를, 지난 99년에는 북한강(평화의 담에서 행주대교) 수상 종주 탐사를 마쳤다.

또한 지난 2000년에는 네팔 안나푸르나를, 2001년에는 몽고의 고비사막을, 2003년에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지난 2002년과 2004년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정상을, 지난 2005년에는 파키스탄의 K-2 베이스 캠프를 등정하는 등 지구의 신비와 대자연의 정취를 체험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가 목적을 두고 먼 길을 가고자 하는 누군가를 위해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俞 前 청장.

『뚝다 걸은 북한 땅 2500리 종단이 생전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완구
충남도지사



이연수
경기 시흥시장



김시환
충남 청양군수



강 광
전북 정읍시장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



천사령
경남 함양군수

警友회원 당선 현황

구 분	성 명	당선 부문	비 고
광역단체장	이완구	충남도지사	前 치안감(충남청장)
기초단체장	이연수	경기 시흥시장	前 총경(시흥서장)
	김시환	충남 청양군수	前 총경(보령서장)
	강 광	전북 정읍시장	前 총경(전주서장)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	前 총경(영천서장)
	천사령	경남 함양군수	前 치안감(경남청장)
광역의원	박순범	경북 도의원	
	김 갑	경남 도의원	밀양 1, 2대 시의원
기초의원	서영원	서울강남 구의원	前 총경(서초서장)
	금익모	서울서초 구의원	

구 분	성 명	당선 부문	비 고
기초의원	윤동현	서울마포 구의원	
	홍준표	서울구로 구의원	
	한석구	서울도봉 구의원	
	김동환	부산남 구의원	
	이용선	부산진 구의원	
	조철제	대구달서 구의원	
	곽성구	인천계양 구의원	
	박문태	울산중 구의원	
	이흥주	전북순창 군의원	
	정한태	전남여수 시의원	
	김태선	경북영천 시의원	
	권오섭	경북영덕 군의원	現 영덕 경우회장

경우회 정관 개정 내용(제 30차 정기총회)

第10條(組織)

⑤ 特別會(參戰警察有功者會, 女警會, 技能會, 國家別 海外會)는 支部組織에, 特別會 傘下會(市道 또는 市道地方警察廳 單位의 參戰有功者會, 女警會, 都市地域 單位의 技能會, 海外都市의 海外會)는 支會組織에 各 該當되며, 特別會는 本部直轄로 하고 特別會傘下會는 該當支部의 支援 및 指導監督을 받는다.

第11條(各級會의 任員 및 代議員)

1. 本部
2. 副會長 7人以内
2. 支部 및 特別會
2. 副會長 3人以上 6人以内
3. 支會 및 特別會 傘下會
2. 副會長 2人以上 5人以内

第12條(各級會 任員의 選出 및 代議員 選出)

⑤ 各級會에서 總會를 召集하지 못하였거나 總會를 召集하고도 會長을 選出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該當會의 首席副會長이 代行하며 首席副會長이 空席일때는 年長者順으로 代

行하고 代行할 副會長이 없을때에는 理事中 年長者順으로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⑨ 各級會의 會長은 總會에서 選出된 副會長中에서 首席副會長을 指名한다.

第13條(各級會 任員의 職務)

② 各級會의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이 空席일 때에는 首席副會長이, 會長·首席副會長이 모두 空席일때는 年長者順으로 會長의 職務를 60日 範圍에서 代行하며 總會와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第14條(任員 및 代議員의 任期와 報酬)

① 各級會(本部, 支部, 特別會, 支會, 特別會 傘下會, 分會)의 任員과 代議員의 任期는 3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本部任員과 支部會長(特別會 包含)및 支會 會長은 1次에 限하여 再任할 수 있고 그 외 任員은 連任할 수 있으며, 任員의 缺員으로 補選된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但, 支會(特別會 傘下會) 會長이 1次 再任期間이 滿了된 후에 後任會長 立候補者가 없을 경우에는 1次에 限하여 本部會長의 再再任 承認을 받아 再選출할 수 있다.

이때 候補者 登錄期日以後 總會前까지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③ 各級會의 會長이 空席일 때에는 殘餘任期가 1年以上 일 경우에는 60日以内に 後任者를 選出하여야 하고 殘餘任期가 1年미만일 경우에는 首席副會長이 다음 定期總會時까지 그 職務를 代行한다.

但, 特別한 事由로 60日以内に 總會를 開催할 수 없을 때에는 次上級會의 承認을 받아 30日以内に 延期할 수 있다.

第17條(諮問委員 및 指導委員등의 委囑)

② 各級會의 會長은 運營과 關聯하여 專門家의 指導를 받기 爲하여 專門家를 指導委員등으로 委囑할 수 있다.

③ 各級會의 諮問委員 및 指導委員 등의 任期는 委囑한 會長의 任期內로 하고 會長이 必要할 때는 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

第21條(總會의 構成)

① 全國總會 代議員은 本部의 會長, 副會長, 理事, 支部와 特別會의 會長과 首席副會長, 本部의 特別委員會委員長, 支會와 特別會 傘下會의 會長으로 構成한다.

경우 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이 장 하

- 제가 삼상생병보험, 대구지방법원 및 경찰 각지의 경찰관서를 거쳐 이제 법무사로서, 부동산전문가로서, 또한 경우로서 새 출발을 함에 있어, 지난 경험을 살려 경찰공무원 및 경우회원만을 상대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선후배 및 동료 여러분들이 서울, 인천, 경기 및 기타 수도권 등과 지역의 부동산을 취급함에 있어서 잔금을 지급하려 부동산 사무실에 가기전에 등기를 법무사로 저를 지정하여 연락주시면(가급적 전금지급 및 5일전까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도 해당됨), 사무실 운영비의 최소화 및 기타 경비절감을 통해 가격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기타 상속등기, 개인회생 파산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각종 법률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가격 등 모든 면에서 선후배 및 동료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5-2 정남빌딩 303호

(교대역 10분출구 이남장영)

Tel: (02)599-1843 ~ 5 Fax: (02)599-1846

휴대폰: 018-219-1298 Email: jhlee2062@hanmail.net